

여, 세종·충북 투표...충청 표심 향배는?

슈퍼위크까지 1차 분수령
과반 득표 vs 역전 발판 구축
결과 타 지역 경선 흐름 형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대전·충남에 이어 1일 세종·충북에서도 시작됐다. 그 결과는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닷새간의 온라인 및 ARS 투표에 대한 대상 현장투표를 더해 오는 5일 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발표된다.

하루 전인 4일 발표되는 대전·충남 순회 투표 결과와 함께 첫 주말에 전체 판세의 풍향계가 될 충청 표심의 향배가 드러나는 셈이다.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인식되는 지역인데다, 처음 공개되는 투표 결과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의 경선 흐름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충청 지역 순회투표와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 '에' 발표되는 1차 선거인단(약 70만명) 투표 결과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강'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위를 보이지만 격차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5명에게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를 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25.5%, 이낙연 전 대표 23.1%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6-18일 1,010명에게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진보진영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가 28%, 이 전 대표가 20%의 지지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받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범 진보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 지역의 33.9%가 이 지사를, 13.9%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

후보 진영에서는 판세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분석하며 중원에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내심 충청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다. 조기 기선제압을 통해 결선 없는 후보

확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세인 대전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충남·북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앞선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캠프 관계자는 "50% 안팎의 득표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조직표의 영향이 있어 절반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바닥 정서에 '될 사람을 뽑는다'는 밴드효과가 더해지면 과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조직력을 앞세워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충청에서 예상보다 선전하는 모습을 보

임으로써 반이재명 표심을 결집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캠프 관계자는 "충청에서 오차범위 내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른 주자들도 충청 민심을 상위권 진영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각오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어른 조사 흐름과는 달리 권리당원 사이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이 확연히 보인다"며 "바닥에서 반향을 일으켜 최소한 선두권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득표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언론중재위 위원장에 이석형 선출

광주제일고 졸업...서울고법 판사 등 역임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사진)이 연임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일 위원총회를 열고 이석형 위원을 제1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제16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으로 이종세 위원(서울 제4중재부,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감사로는 심창섭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과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교수)이 이날 총회에서 새로 선출됐다. 이석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언론



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국민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건 폭증에 따른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서의 열람자 단정구권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적 현안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4일부터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송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인권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충북 영동 출신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하다가 199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조영래 변호사·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연수원 동지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3년 국민의 정부 대북송금 의욕과 관련해 특검으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송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친 뒤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판례 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사후매수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낙태죄 등에

위헌 의견을 내며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명단 확정

여, 김종민·김용민
야, 최형두·전주혜

외부 위원 4명도 곧 인선

여야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 회동 후 밝혔다.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율사 출신 인

사가 1명씩 참여하는 구도로, 한달이 채 안되는 시한부 활동 기간 '창과 방패'의 화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재선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이자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왔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진문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초선인 최형두 의원 역시 언론인 출신 문체위원으로, 문체위에서 꾸준히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역시 초선인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해왔다.

양당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임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연련 등 언론계 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인사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온 언론인단체 등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오는 26일 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언론중재법 합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논의할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도 언론중재법의 원점 재검토 여부나 '협의체'의 논의 범위·권한 등을 두고도 여야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석 회동 후 국민의힘 일각의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이 준비한(수정)안도 있다. (이런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왕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협의하는 과정이냐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은 다 같이 논의하며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국회 통과 기다리는 계류 법안들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에서 관계자가 계류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T : (062)525-6993-4 M : 010-3647-3832
F : (062)525-3832 E : jwc3832@nate.com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